

생각이 거리다

생각 따로 몸 따로 살면, 허무하고 공허하다

본 문 이사야 45장 11-12절

할렐루야!

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의 평강과
성령님의 뜨거운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.

- ◎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한 대로
오늘도 기도하며 하나님과 성령께 물어보고,
하나님과 성령께서 하신 말씀을 설교해 주겠습니다.
- ◎ 주제는 ‘생각이 거리다.
생각 따로 몸 따로 살면, 허무하고 공허하다.’ 입니다.
- ◎ 오늘은 1시간 안에 설교가 끝나게 해 준다고
의논하고 말씀하셨습니다.

긴 설교는 장시간 동안 말씀을 이해시키며
성령과 감동으로 끌고 가야 하기 때문에 유능한 자가 잘 전합니다.

그러나 설교가 짧아지면 각 교회 설교자도 보다 잘할 수 있고,
듣는 자들도 집중해서 들으니 설교 내용이 귀에 쏙 들어갑니다.

◎ 말씀 시작하겠습니다.

<말씀 시작>

◆ 선생의 새벽 기도 시간은 1시입니다.

성령님은 늘 오셔서 나를 깨워 주십니다.

이 말씀을 쓰는 날은

성령님이 깨워 주시기 전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기도했습니다.

그리고 성령님께 묻기를

“지금 어디쯤 오셨어요? 가까이 오셨어요?” 했습니다.

◆ 성령님의 답은 이러했습니다. (잠시 쉬었다가)

<자막> “생각이 거리다.” (천천히, 한 번 더 말해 주기)

◆ <생각>이 ‘거리’ 다?

이 말은 ‘성령님이 쓰는 말’ 이라서 한 번에 못 알아들었습니다.

‘무슨 말이지? 내 물음의 답이 맞는데...’ 생각하다가,
감동이 되고 깨달아졌습니다.

◆ 깨닫고 보니, 이 말씀에서 ‘거리’ 는

하나님 · 성령님 · 성자와 사람과의 거리를 말한 것이었습니다.

잘 들어 봐요.

사람들은 50m, 100m, 200m, 500m 거리를 계산하지요?

이것으로 얼마만큼 가까이 있고, 떨어져 있는지 계산합니다.

그러나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
이렇게 ‘거리’ 를 계산하지 않습니다.

<생각하는 것>에 따라서

옆에 가까이 있는지, 멀리 있는지 ‘거리’ 를 따지십니다.

◆ <생각 실상의 세계>입니다.

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

생각과 심정이 잘 통하고 생각과 심정이 일체 되어 있으면,

<삼위와의 거리가 떨어져 있지 않은 상태>입니다.

그러나 생각과 심정이 잘 안 통하고 일체 되어 있지 않으면,

삼위와의 거리가 100리, 1000리, 억 리까지

<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>입니다.

생각과 심정이 더 멀면,

1광년, 10광년씩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하셨습니다.

◆ 삼위와 생각과 심정이 잘 안 맞고 보통 상태이면,

사람과의 거리로 따졌을 때

천 리, 만 리, 100만 리 떨어져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.

◆ 삼위와 생각과 심정이 딱 맞고 일체 되어 있으면,

대화가 되고 계시도 받게 됩니다.

그때는 옆에 가까이 계시는 것입니다.

◆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늘 찾고 사랑하며

하나님이 쓰시는 몸이 되고 성령의 몸이 되어 쓰여지면,

거리 없이 완전히 일체 된 것입니다.

<잠시 쉬었다가>

- ◆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생각과 심정이 잘 통하고 일체 되려면,
매일 삼위일체를 잊지 말고, 사랑하고, 생각하고,
늘 교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.

- ◆ 또한 <자기가 지은 죄>는
작으나 크나 매일 회개하여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.

마치 자기 몸은 매일 자기가 씻고 깨끗하게 하듯이,
저마다 매일 <회개>를 잊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.

- ◆ <회개>를 잊으면 ‘죄’에 조건 잡혀 죽은 자가 되니,
매일 ‘자기 무지, 자기 할 일을 못 한 것,
하나님 생각대로 살지 못한 것, 기도하지 못한 것,
말씀과 성령을 소홀히 한 것, 주를 소홀히 한 것
주와 형제를 의심하고 오해한 것’ 등을
회개하면서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.

- ◆ <회개하지 않는 자>는
씻지 않고 땀과 때에 젖은 상태로 먹고 입고 사는 자와 같습니다.

그럼 사탄과 싸워 이기기에 아주 불리합니다.

사탄은 ‘깨끗한 것’ 앞에는 힘을 못 씁니다.

고로 매일 자기 죄, 타인의 죄, 민족의 죄, 세계의 죄를 놓고
기도해 줘야 됩니다.

그러면 사탄도 쉽게 물러갑니다.

- ◆ <사탄>은 ‘죄’를 ‘권세’로 삼고 옵니다.

고로 ‘죄’가 없으면, ‘사탄이 부릴 권세’도 없습니다.

<죄>를 없애려면, ‘오직 회개’입니다.

<회개>는 ‘더러운 것을 씻어 내는 것’과 같습니다.

- ◆ 하나님은 <법>을 정해 놓으셨습니다.

인간에게 ‘자유의지’를 주시고, 자유롭게 살게 하셨습니다.

그러나 ‘각자 행한 대로 받는 법’을 정하시어

<선>을 행하면 ‘선’으로 갚아 주시고,

<죄>를 지으면 ‘죄값’을 치르게 하십니다.

그러나 <회개>하면,

그에 해당되는 탕감을 받게 하고 거기서 끝나게 하십니다.

- ◆ 왜 <회개>하면 ‘탕감’을 받게 하시냐고요?

이는 마치 ‘치료 기간’과 같습니다.

사고가 나서 다쳤으면 바로 ‘정상적인 일상생활’을 할 수 없지요?

반드시 ‘치료 기간’을 거쳐야 됩니다.

이와 같이 <죄>를 짓고 ‘회개’하면

일정 기간 ‘탕감 기간’을 거치게 하시고,

그 후에 ‘본래 상태’로 돌아오게 하십니다.

- ◆ 누가 말하지 않아도 자기 몸은 자기가 씻듯이,

누가 말하지 않아도 쓰레기는 치우듯이,
누가 말하지 않아도 먹은 후에는 설거지를 하듯이,
<죄>에 대해 말하지 않아도 매일 꼭 ‘회개’ 해야 됩니다.

- ◆ 자기 삶에서 매일 ‘회개 운동’ 이 일어나고
교회에서도 매일 ‘회개 운동’ 이 일어나면,
매일 자기 삶 속에서 ‘성삼위와 주와 함께 잔치’ 하고
교회에서도 매일 ‘폭포수 같은 화목’ 이 일어납니다.

그래서 올해 수련회 주제도 <폭포수 같은 화목>으로 정했습니다.

- ◆ 매일 <삼위일체와 주>를 잊지 말고 사랑하고 생각하고 늘 교통하며,
매일 <회개>를 잊지 말고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회개함으로
삼위와 주 옆에 가까이 붙어 사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!

<전환>

◎ 계속해서 다음 말씀을 전해 주겠습니다.

- ◆ 첫 번째 ‘생각이 거리다.’ 하는 성령의 말씀을 듣고,
두 번째로 하나님을 부르며 깊이 기도했습니다.

그러면서 섭리사에 해 주신 것들과
과거에 지켜 주시고 해 주신 것들을 생각하며,
섭리인들을 대표하여 진~정 감사하다고 기도했습니다.

- ◆ 자기 힘으로는 평생 못 하는 것이 있고,
100억, 1000억이 있어도 돈으로는 안 되는 것이 꼭 있습니다.

만일 ‘어떤 사람이’ 그것을 해 줬다면,
평생 고맙다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?

그런데 고마워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?

자기 힘으로는 평생 못 하는 것을 해 줬고,
100억이 있어도 안 되는 것을 해 줬는데,
돈으로 따졌을 때 100만 원 정도도 안 되게
인사치레로 말로만 하고 끝내면 되겠습니까?

어떤 사람은 ‘인사’도 없습니다.

- ◆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고백하면서,
“저는 죽을 때까지 <하나님이 주신 것들>을 잊지 않고 감사하며
그것을 ‘낙’으로 삼고 이야기하며 살겠습니다.” 했습니다.

그리고 <하나님이 주신 것들>을 놓고 대화했습니다.

- ◆ 이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. <중요>

(천천히 한 문장, 한 문장 이해되게 설교할 것)

“창조주도 너도 그들에게 주지만, 그들은 받고도 누리지를 못한다.
고로 마음에 ‘기쁨’도 없고, 그로 인해 ‘사랑’도 없다.
이는 <생각>이 작고 차원이 낮기 때문이다. (잠시 쉬었다가)

그들이 크고 성장하면,
더러는 받은 것들을 깨닫고 누리며 기뻐하고
나 여호와를 사랑할 것이다.

고로 가르쳐라.

<생각과 지능>이 ‘영적’으로 성장해야 된다. (잠시 쉬었다가)

<자기 육신>과 <자기 영의 생각>만 일체 돼도 다른데,
육에 속해서 사니 모르고 감사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고
누리지 못하고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다.

<영>은 휴거되어 ‘높은 생각과 지능’을 가지고 있으니,
저마다 ‘자기 영과 대화’하게 하여라.” 하셨습니다.

- ◆ 이때 하나님과 하루 종일 대화하고 싶었습니다.

그런데 하나님도 지구상의 다른 사람들을 만나러 가셔야 하니,
의식이 된다고 했습니다.

하나님은 지구 세상 73억 명을 모두 살피시는데,
각 개인에게 1분씩만 시간을 줘도
세상 시간으로 계산하면 대강 13,888년 정도가 됩니다.

그러니 하루 종일 오랫동안
혼자서 하나님을 오래 만나기가 의식된다고 했습니다.

- ◆ 이때 하나님은 순간 ‘지구의 모습’이 생각나게 하였고,
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.

“각 나라 강물들은 바다로 흘러가는데,
옆 나라의 강물들이 자기 나라의 바다로 흘러 들어와도
전혀 지장 없지 않냐.

하루 종일도 상관없고, 일생 동안도 상관없다.

이와 같이 너 혼자 하루 종일, 일생 동안 나와 대화해도

전혀 상관없다.” 하셨습니다.

- ◆ 이 말씀을 듣고 섭리사에도 나 같은 사람이 많으니,
설교로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.
- ◆ 이때 하나님은 더 이해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. <중요>
(천천히 한 문장, 한 문장 이해되게 설교할 것)

“<태양>은 ‘하나’ 인데,
지구 세상 73억 명이 하루 종일 써도 아무 지장 없지 않느냐.

나 여호와와는 <태양> 같아서

1:1로 각 개인이 하루 종일 나를 신랑 삼고 대화하며 살아도
아무 지장이 없다. (잠시 쉬었다가)

천국에 와서도 그러하니라.

인생들이 ‘육’ 으로 세상에서 살다가 ‘영’ 을 구원하여
그 영이 천국에 오면 정~말 좋다.

나 여호와가 선조 때부터 시대에 따라 세상을 이끌다가
이 시대에 ‘너희를 신부로 삼고 같이 사는 역사’ 에 불렀다.

그러니 매일 마음과 몸을 다해 나 여호와 앞에 1:1 삶을 살아라.

그래야 ‘너희 육신’ 이 세상에 있을 때
신앙의 삶도, 섭리의 삶도, 육의 삶도
최고 보람을 누린다. (잠시 쉬었다가)

진~정 나 여호와를 ‘사랑의 대상’ 으로 삼고 살아라.

그러면 땅에서도 잘되고 형통하고 지상천국의 삶을 살다가
<육>이 죽으면 <휴거된 영과 혼>이
나와 함께 황금성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며 산다.” 하셨습니다.

<전환 : 말씀 마무리>

◎ 이날 하나님과 대화 중에 물어보고 답해 주신 것을
마지막으로 짧게 전해 주고,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.

- ◆ 사람들이 살면서
마음이 허무하고 공허하고 맛을 잃고 살 때도 있는데,
각각 문제의 답은 다르지만 근본적으로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.
- ◆ 하나님은 각종 문제를 두고, 한마디로 말씀하셨습니다.

<자막> “<생각> 따로 <몸> 따로 사니, 그러하니라.” (천천히)

- ◆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. <중요>
(천천히 한 문장, 한 문장 이해되게 설교할 것)

“<육>, 즉 <몸>만 행하면, 행해도 허무하다.

이는 마치 부부끼리 사는데 ‘여자 혼자’ 행하면
여자도 남자도 곤고하고 허무한 것과 같다.

나 여호와와 창조와 법을 알아라.

- <생각>과 <육, 몸>이 일체 되고,
- <생각>과 <혼>이 일체 되고,
- <혼>과 <영>이 일체 되고,

- <영>은 <나 여호와>와 일체 되어 살아야
허무하지도 공허하지도 허탈하지도 않다. (잠시 쉬었다가)

크게 보면 <영>은 ‘하늘’로서
삼위일체, 곧 나 여호와와 성령과 성자요,
<육>은 ‘땅’으로서 너희 인생들이다.

일체 되어 행해야 - 허무도 공허도 허탈도 없다.” 하셨습니다.

- ◆ 모두 가르쳐 줬으니
 - 잊지 말고 말씀을 행하며 살고,
 - 더 나아가 말씀을 전하면서 살기 바랍니다.

- ◆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

말씀을 한 번 듣고 끝내고 다 잊어버리면,
그 사람에게는 ‘오는 축복’도 없고 ‘축복’이 와도 모릅니다.

<말씀>을 ‘하나님’처럼 귀히 여기고 행해야 됩니다.

- ◆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,
하나님은 누가 <말씀>을 귀히 여기고 행하는지 보십니다.

그리고 <행하는 자>에게 함께하시고,
그와 함께 ‘표적’을 일으키시며 ‘시대’를 끌고 나가십니다.

- ◆ 주의 평강을 빕니다.